

6월16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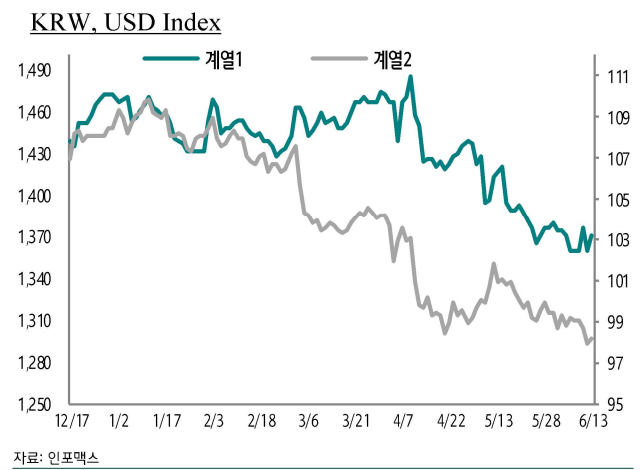
중동
전쟁
환율
상승
전망
속
달러
강세

[USD/KRW]

USD/KRW 예상 : 1365~1375원
NDF 증가 : 1364.50 (Swap point : -2.75, 1367.25원)

- (금일 전망) 금일 달러/원 환율은 중동 지역의 군사적 충돌 주시하며 상승 예상. 이스라엘과 이란은 양국의 에너지 인프라와 군사 시설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며 확전 우려를 키우고 있으며 국제 유가와 세계 경제에 상당한 불확실성을 야기. 이는 지정학적 리스크에 취약하고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 요인. 이에 금일 달러/원 환율은 1370원 초중반대 레인지 예상되나 정부의 2차 추경안 발표와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수 흐름이 이어진다면 원달러 환율의 상승폭을 일부 낮출 가능성이 있음.
- (전일 동향) 13일 달러/원 환율은 미 PPI 지표 소화하며 3.7원 내린 1355.0원으로 개장. 이후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장중 1373.0원까지 급등하며 10.9원 상승한 1369.6원으로 정규장 마감. 이후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와 중동 전쟁 관련 이란과 핵 합의 기회 등을 소화하며 1363.5원 마감.

달러/원 환율 상승 요인	달러/원 환율 하락 요인
• 중동 전쟁 확전 우려에 따른 위험 회피 심리 확산	• 정부의 2차 추경안 발표 • 외국인의 국내 증시 유입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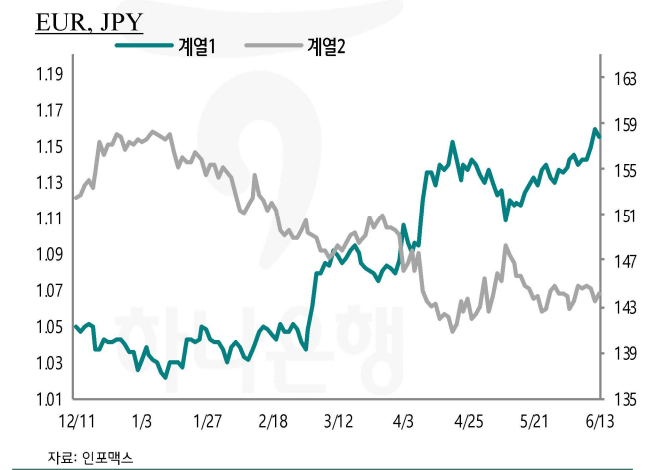


[Global Market]

EUR/USD 예상 : 1.1480~1.1580
USD/JPY 예상 : 144.10~155.10

- (USD Index) 달러는 국제유가의 급등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적인 안전자산 지위를 입증하며 반등. 달러인덱스는 0.28 상승한 98.144를 기록.
- (EUR) 독일의 5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 오르며 시장 예상치에 부합.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로 에너지 가격 상승에 취약한 유로/달러는 0.0040달러 하락한 1.1543 달러로 마감.
- (JPY) 엔화는 오는 17일 일본은행의 금융정책 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5%로 동결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달러 대비 약세를 보이며 0.63엔 상승한 144.06엔으로 마감.

글로벌 통화 동향		
구분	증가(전일비)	재정환율(KRW)
USD Index	98.144 (+0.28)	
EUR/USD	1.1543 (-0.0040)	1580.92 (+7.08)
USD/JPY	144.06 (+0.63)	950.51 (+3.72)
USD/CNH	7.1876 (+0.0152)	190.46 (+1.09)



[Macro Analysis]

미국채 장단기 Spread(10Y-2Y) : +45.30bp (전일대비 +0.30)

▪ 글로벌 금융시장은 이스라엘과 이란의 갈등이 심화되며 위험회피 심리가 고조되는 양상. 이스라엘은 이란의 주요 핵과 군사 시설을 공격하였으며 이에 이란은 미사일로 보복하며 중동 확전 위기가 커짐. 미국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는 6개월 만에 상승세를 보이며 60.5를 기록하였으며, 5월 기대인플레이션도 전월 대비 소폭 하락. 미 국채 수익률은 국제 유가 상승으로 인한 물가 상승 우려와 소비자심리지수의 반등을 소화하며 2년물 3.8bp 상승한 3.9500%, 10년물 4.1bp 상승한 4.4030%를 기록. 뉴욕 증시는 중동 확전 가능성에 일제히 약세 흐름을 이어가며 다우지수 -1.79%, S&P -1.13%, 나스닥 -1.30% 마감. 국제유가는 한때 14%까지 급등하였으나 이내 상승폭을 줄이며 7%대 상승 마감.

